

998834



“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온 이번 겨울도 어느덧 춘삼월 봄바람에 물러가고 몸과 마음이 활기를 찾는 계절로 접어들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제가 나날이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온 이번 겨울도 어느덧 춘삼월 봄바람에 물러가고 몸과 마음이 활기를 찾는 계절로 접어들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제가 나날이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도 하다.

지난 연말 회의를 마친후 어느 회식자리에서 L사장이 건배 제의를 했는데 998834! 라는 암호같은 숫자를 외치는게 아닌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했더니 L사장은 웃음띤 얼굴로 상업인쇄부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숫자로 건배제의를 한다면서 암호(?)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내용인즉 “아흔아홉살(99)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삼일만(3) 앓고 죽자(4·死)”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어느 주간지에서도 이 숫자를 소개해서 이미 폭넓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됐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80세 가까이에 이른점을 감안해 본다면 건강하게 99세까지 사는 세상이 머지않아 찾아 올지도 모른다.

얼마전에 한 TV프로그램에 103세된 어르신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남녘 끝자락 땅에서 평생을 욕심없이 지내셔서 그런지 지금도 귀만 좀 어두우실 뿐 60이 넘은 따님과 함께 꼬장꼬장한 여생을 보내고 계셨다. 이 어르신은 평생 먹는일이나 시는일에 욕심내지 않고 높은 도덕수준을 유지하면서 순리대로 세상을 살아 온 것이 장수로 이어진듯 하다.

살고 죽는 것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생활과 사는 자세에 따라 수명에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자료를 보느라 짧은 인생길 남과 다투지 않고 베풀며 사는 것 또한 큰 복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필수요건으로 몸에 알맞은 영양섭취와 담배 술 등을 멀리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인쇄인들은 업종의 성격상 ‘장수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인쇄업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다가 크고 작은 트러블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디 거저먹는 사업이 있을리 없겠지만 요즘 인쇄인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느라 민망하기 그지없다.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감확보와 시설도입, 불확실한 미래예측에 떨고 있으며 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는 인쇄사들도 널뛰기 환율에 멈춰거리고 있는 등 업계전체가 물에 잠긴 듯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에 신경쓰면서 욕심내지 않고 봉사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추구하는 인쇄인이 늘고 있어 장수하는 인쇄인 또한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 한 인쇄인이 인쇄인들을 위한 실버타운 구상을 밝힌적이 있는데 ‘인쇄인 장수마을’의 그림도 꽤 짙을 것 같다.

인쇄인여러분, 좋은일 많이 하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세익 · 편집주간